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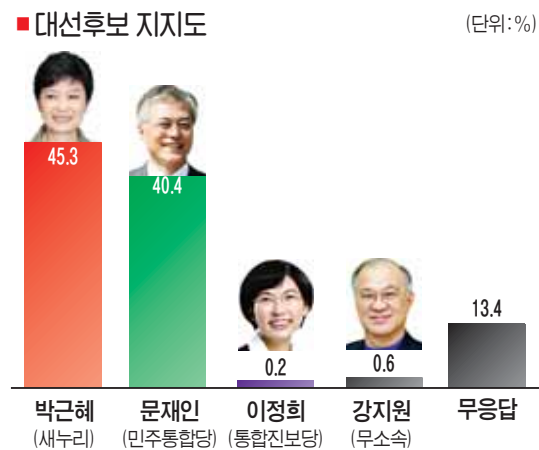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 3015명 대선 여론조사 ▶3편

조사결과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朴 45.3% 文 40.4% 접전속 13.4% 무응답

### 박근혜 호남·제주의 전지역서 앞서 투표의향 호남 83.6% TK 92.7%

18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 동안 전국 3015명의 남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5.3%를 기록, 40.4%를 나타낸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1.8%) 밖의 차이로 앞섰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0.6%,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0.2%의 지지율에 그친 가운데 무응답 층이 13.4%로 집계되면서 부동층의 행태에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75.3%, 박근혜 후보가 12.6%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무응답이 11.4%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의 텃밭인 대구·경북은 9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19~20대, 30대, 40대에서 문 후보가 우세를 보인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가 48.7%를 얻은 반면, 문재인 후보는 24.8%에 그쳤으며 무응답층이 26.4%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77.1%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했으며 21.1%가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각 분야별 후보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경제, 국가 위기상황 대처, 지역발전 부문에서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경쟁력이 같았다.

자기 대통령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기 회복 및 경제활성화(20.5%)가 꼽혔으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16.5%), 물가 안정(8.5%), 서민정책 추진(8.0%), 복지 정책 확대(6.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7.9%, 민주당 통합당 31.5%, 통합진보당 2.2% 순으로 집계됐다.

RDD(Random Digit Dialing·무작위 임의결기 방식)를 이용한 집전화와 휴대전화 결합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응답률은 29.2%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일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일선 동사무소로 보낸 대선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귀족 후보” “다운계약서”... 비방전 혼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방과 의혹 공방이 난무해 선거전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이 같은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정책대결이 실종되면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3차례 TV토론, 부동층을 끌어들이는 양측의 쇄신책이 판세를 뒤집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박 후보는 2일 강릉과 속초 유세에서 “문 후보가 핵심실세였던 지난 정부를 서민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념 투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국민을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도 이날 인천과 부천

유세에서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 실재를 했다고 남 얘기하듯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절반의 권력을 가졌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양측 선거캠프도 상대 후보와 관련, “귀족후보”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박 후보 일가 재산내역을 파악한 결과, 직계형제의 장부상 재산은 4638억원이고 5촌 이내 친인척 및 외사촌 일가 재산은 8836억원으로 집계돼, 총 1조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를 ‘1% 귀족 후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 후보가 3년간 133벌에 달하는 고급 정장을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날에는 문 후보의 부산 상가건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이 “서울 빌라에 이어 부산의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두 건의 의혹 모두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우 단장은 “부산지역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주변 건물 가격이 폭락했고, 새 청사 주변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보고 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일부 언론의 ‘새누리 선대위 간부 거액수수’ 보도를 거론,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 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으나, 새누리당은 “돈을 받았다는 고모씨는 평당 원으로, 현재 해당 언론을 고소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알림

## 함께 해요, 희망 레이스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오늘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mara.kjmedia.co.kr

- 일시: 2013년 3월 1일(금)
- 종목: 풀코스·하프코스: 10km·5km
- 마감: 2013년 2월 7일(수)
-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 광주시의회 누리사업 708억 전액 삭감

### “3~5세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전국 처음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확대되는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사업비 중 광주시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 예산 70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인 만큼 전액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총 1조6051억1176만원 예산안 가운데 862억6581만원을 삭감한 1조5188억4595만원을 의결했다.

교육위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내역은 ▲누리 과정 708억원 ▲임해수련원 시설비 88억 원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 16억원 ▲학교 웹 호스팅 시스템 운영 25억원 ▲선진형 국외 교육탐방 1억5000만원 등이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지난 20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삭감했으며,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 석사과정(야간): 광주반, 여수반
-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 최고정책과정 ■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http://cnugpa.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1031-증-34475호

## 10년 행복! 광주일곡병원이 더 나은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0년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감사했던

많은 고객 분들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10년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2012년의 끝자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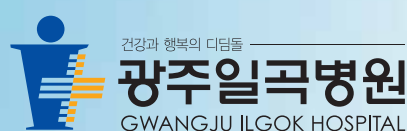
그 동안 변치 않고 광주일곡병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과 따스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광주일곡병원 전 임직원은 지역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응급의학과 / 인공신장실 / 종합검진실 / 물리치료실

**광주광역시 야간건강검진 지정병원**  
평일 저녁 9시까지 연장 건강검진 예약문의: 062-608-7575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일곡동)  
대표전화: 062)608-7000 팩 스: 062)608-7070  
응급실: 062)608-7119 인공신장실: 062)608-7500

지역응급의료기관

10th  
ANNIVERSARY  
광주일곡병원 개원 10주년